



④ (사)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협의지위기관

04308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19 청파빌딩 4층  
Tel. 02-703-9321 [www.wfwp.or.kr](http://www.wfwp.or.kr)

# DMZ PEACE ZONE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전 유성호텔 킹홀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주관 (사)세계평화여성연합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KOREA  
 UN NGO 포괄적협의지위기관



유엔한국협회 United Nations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후원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UPF 충청지구  
Universal Peace Federation



## 프로그램

### DMZ Peace Zone Symposium

시간	주요내용		
10:30~10:3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0:35~11:00	개회식	환영사	김미주 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청)
		인사말	최종무 부회장 (유엔한국협회)
		격려사	문훈숙 세계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축사	유경득 회장 (UPF 충청지구)
11:00~11:05	기념촬영		

주제: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

좌장: 박홍순 부회장 (유엔한국협회)

11:05~12:40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유엔사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략 방향	정한범 교수 (국방대학교)
	DMZ 내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고찰	정시구 교수 (선학UP대학원대학교)
	종합 토론	
12:40	폐회	



## 주요 참석자



###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

- 現 유니버설발레 단장
- 現 국제공연예술총회(IPSA) 서울총회 자문위원
- 現 선학학원 부이사장



### 김미주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청 회장

- 現 선학장학재단 이사
- 前 세계평화여성연합 서울강남권 지부장
- 前 세계평화여성연합 선문대학교 지부장



### 최종무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現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前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 前 주 네덜란드 대사



### 유경득 천주평화연합 총청지구 회장

- 前 세계평화청년연합 회장
- 前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前 민화협 청년위원회 위원 및 고문



### 박홍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現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유엔체제학회(ACUNS) 집행이사
- 前 외교부 자문위원, 유네스코집행위원
- 前 민주평통 상임위원



###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現 한국DMZ학회 회장
- 現 한·독통일포럼 공공대표
- 現 DMZ유엔평화대학교 추진위원장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現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간사
- 現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정시구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수

- 現 한국행정사학지 편집위원장
- 現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PWPA) 이사
- 前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연구교수

# DMZ Peace Zone Symposium



## 발제1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한국DMZ학회 회장  
한·독 통일포럼 공동대표  
중국 천진외대 초빙교수  
前 통일연구원 원장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원칙

- '평화': 인간과 인간 + 인간과 자연 간  
갈등과 분쟁의 상징에서 인간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
- 인간과 자연환경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지역
- 남북관계 개선, 통일 준비 및 촉진에 기여
- 이용과 보전 간의 조화
- 지역경제발전, 국토균형발전, 국가성장에 기여
- 북한 및 국제사회의 이해 포용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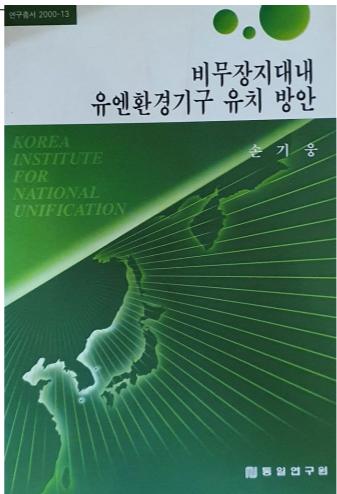
- DMZ는 모든 차원에서의 남북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얹혀있는 곳
- DMZ를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남북 합의·선언·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
- 남북이 DMZ 평화적 이용에 합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서로가 정치·군사·경제·문화·환경 등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평화공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 '정전협정' 당사자,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DMZ 평화적 이용은 대 북한주민 항구적 통로 확보, 통일준비

###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고려사항

- 정치적 측면
- 군사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문화적 측면
- 환경적 측면
- 국제적 측면

## DMZ유엔환경기구

- 동북아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 환경문제
- 동북아는 환경협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
- 유엔의 권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엔 산하의 환경기구를 DMZ에 유치  
- Agenda 21 지역협력 모범사례화
- 한반도 평화 정착
- 북한 변화, 통일 준비



## DMZ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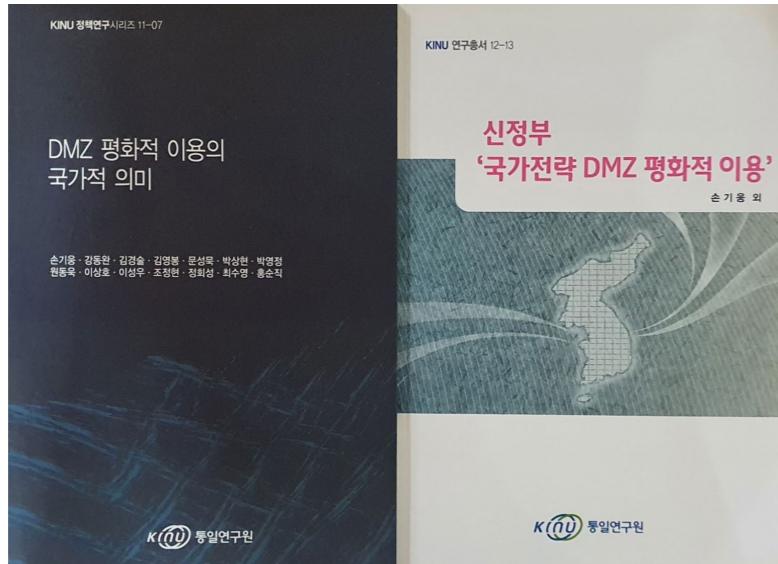
## DMZ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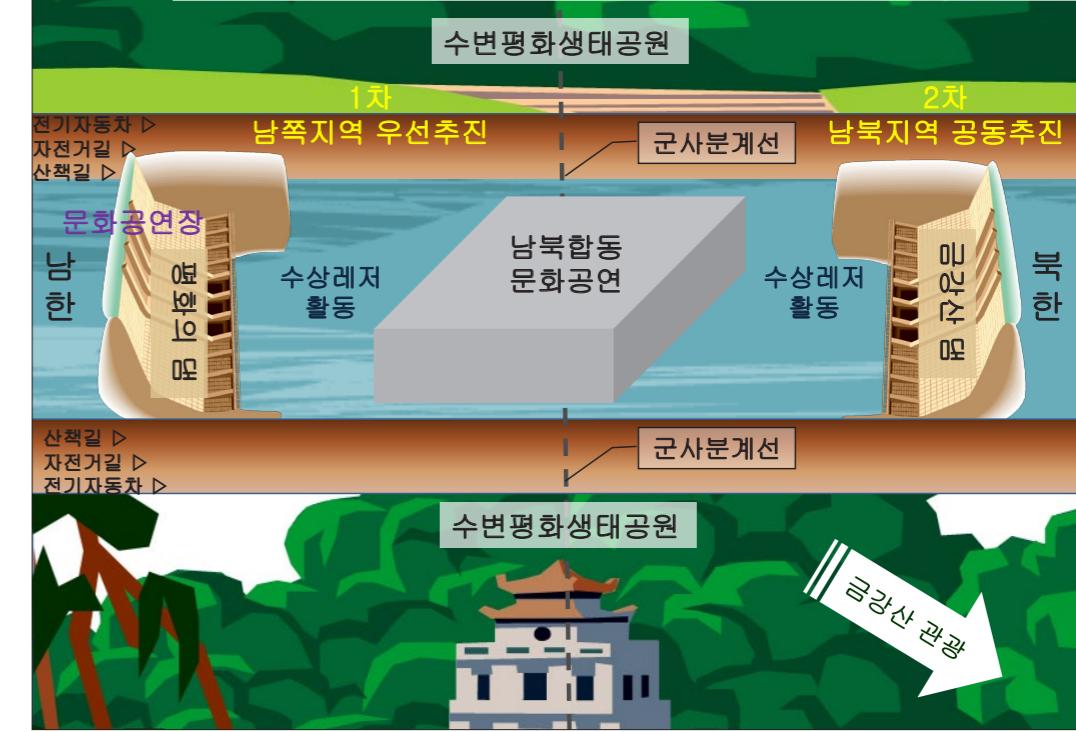
## DMZ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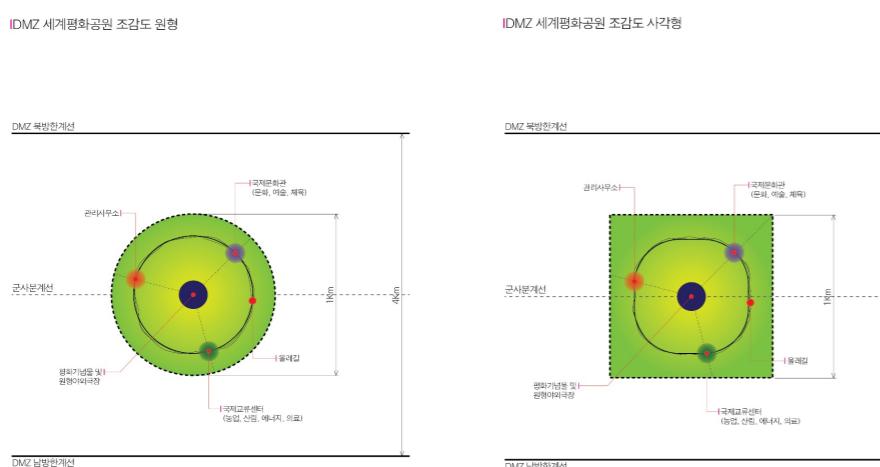
## DMZ 연구



## DMZ북한강상류지역 세계평화호수공원



## DMZ세계평화공원



## DMZ유엔평화대학교

### 1. 배경

- 한반도 평화의 가시적 성과 창출
- 통일 준비
-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도 실행 가능
- 대한민국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 향후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보장

### 2. 목적

- 한반도·동북아의 중심지, 갈등의 중심지 DMZ에 '평화회복·유지·확산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교육하는 '유엔평화대학교'를 설립하여 평화의 정착 및 항구화에 기여

## DMZ유엔평화대학교



## DMZ유엔평화대학교 개교 기념사 나는 DMZ 시민입니다!

'DMZ유엔평화대학교'의 개교를 선언합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이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동서 간의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1963년 6월 26일 유럽에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방문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연결했던 존 F. 케네디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오늘 DMZ유엔평화대학교의 개교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2천여 년 전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Civis Romanus sum)가, 55년 전에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Ich bin ein Berliner)가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지금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DMZ 시민입니다”입니다.

오늘 남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통해 DMZ에 조그만 문을 엽니다. 이곳 DMZ에 유엔평화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식을 가지고 평화를 이끌고자 노력한 모든 사람의 결실이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DMZ 전역에, 한반도 전역에, 동북아 전역에 이 평화의 나무가 뻗어 자라나가도록 다시 씨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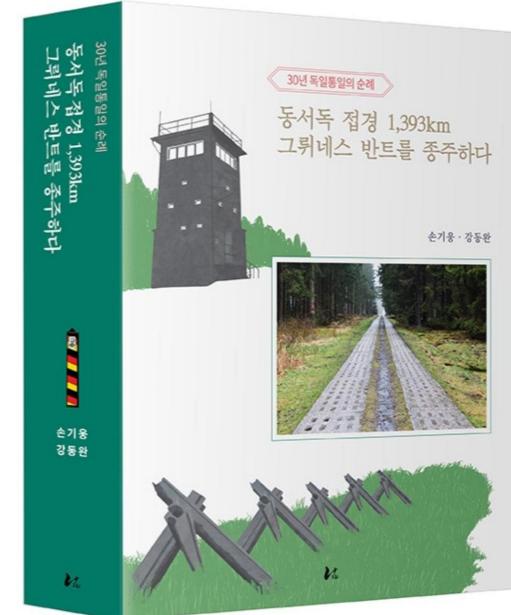
DMZ로 오십시오. 평화로운 권리, 지속적인 평화 속에서 살 권리와 원하고 노력한 모든 사람은 이제 DMZ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DMZ 시민권자 여러분, 평화란 불가분의 것입니다. 지구상 단 하나의 국가가 평화를지 못하면 모든 국가가 평화를지 못한 것입니다. 유엔평화대학교가 우뚝 선 이곳은 DMZ 내의 조그만 평화의 섬입니다. 이 섬이 DMZ 전역으로 커지고 이어져 육지가 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도록 여기서 꿈을 꿍니다. 오늘은 DMZ유엔평화대학교 만이 평화이나, 내일은 DMZ 전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이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바라보며 힘을 얻읍시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날, 비로소 이 한반도가 평화롭고 희망에 찬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를 넘어, 지구상 모든 곳에서의 평화를 꿈꾸십시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DMZ의 철조망을 넘어서 전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십시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DMZ유엔평화대학교의 개교를 맞아 DMZ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장 크게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DMZ의 시민입니다. 모두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DMZ의 시민이다!”

## 30년 독일통일의 순례 : 동서독 접경 1,393km 그루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 “열려라 우리나라”발족 2021.04.26



2021년 「한·독 통일포럼」, 'Deutsch-Koreanisches Wiedervereinigungsforum', 2021

● 학술회의 “한반도 통일 전망: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 차기 대선이 가지는 의미” 및

● 출판식 “열려라 우리나라”

● Konferenz “Perspektiven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 Implikationen der Amtseinführung 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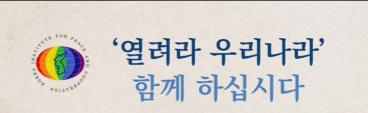
Biden Regierung und der nächsten koreanischen Präsidentschaftswahl” &

● Einladungsschreiben

○ 일자: 2021년 4월 26일(수) 10:00 ~ 18:00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호, 신라호텔 서울

○ 주제: 한미동반자유무역협정, 한-미-일-중-독 협력, 통일국, DMZ방한객선, 한미우호회



‘열려라 우리나라’  
함께 하십시오

통일 의식 확산과 통일 의지 고취를 위해,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통일운동 ‘열려라 우리나라’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셔서 민족과 역사 앞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열려라 우리나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공동위원장 베른하르트 폴리거 한스-아이겔재단 한국사무소장

2021년 8월 15일 통일원비 ‘열려라’, 통일연원표지판 ‘우리나라’ 제막

통일원비 ‘열려라’

통일연원표지판 ‘우리나라’

분단 해 1945 – 열을 통일되는 해를 새기기 위해 비워둔

분단 해 76을 새기고, 통일이 될 때까지 8-15년 한 획을 더함

DMZ방한객선 곳곳에 세울

※ 안내/첨가신청 :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 유민덕 010-6556-3028

※ 출원개최 : 신한은행 100-035-236875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열려라 우리나라)

※ 재능이나 물질로 기부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통일원비 및 연원판에 새깁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이자 분단날에

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만납시다!

# 【손기웅의 통일문】

최보식의 언론

2021년 06월 03일 (목)

오피니언 기고 정치·사회·경제

▶ [Home](#) > [오피니언](#) > [손기웅의 통일문](#)

##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형제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 손기웅 객원논설위원 | ○ 입력 2021.06.02 08:31 | ○ 수정 2021.06.02 17:21 | ■ 댓글 0

▶ [f](#) [t](#) [y](#) [o](#) [e](#) [m](#) [n](#) [r](#)

마틴 루터 킹과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준 영감(靈感)

“I have a dream”, “Yes. We Can”에 통

### 朝鮮日報

뉴스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코로나 백신  
"코...며칠 더이어 더오며 대표가..."

#### 최보식의 언론 >



빌리 브란트 수상의 보좌관도 동동 간첩  
▶ [기사 더보기](#)

노무현, “손 지사님, 떼를 그렇게  
쓰시나니! 이제 마조羞시나! 봄?”

이광요의 박정희 정부 품평 “한국은  
다귀느 차저기이 가느니 머잖며...

#### 주간조선 >

▲ 뉴스 NEW 오디오 일정 북마크 지면보기 ↑

#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2015) 통일, 온 길 갈 길(2020)

통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열려라 우리나라

발제2

유엔사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략 방향

정한범 교수  
(국방대학교)

# 유엔사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략 방향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정한범

## 유엔사령부 (UNC : United Nations Command)

### • (창설 배경)

-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자, 전쟁발발 당일인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82호를 통과시켜 "북한 정권은 38도선 이북으로 철군"하도록 권고.
- 북한군이 이 조치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남침을 강행하여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 제84호를 통과시키면서 "군대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된 사령부'를 통해 활동할 것"과 미국은 이 통합된 사령부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권고.
- 1950년 7월 31일 결의 제85호를 통과시켜 '통합된 사령부' 지휘 아래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대한민국의 민간인을 원조할 것"을 권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

## 유엔사령부 (UNC : United Nations Command)

- (개요)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이다. 유엔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직, 1950년 7월 24일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 18개국이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음.



(출처 : 동아일보 기사, 2019.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712/96438677/1>)



- (임무) 1978년 설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으며,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운영, 판문점에 주둔하는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계초소의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음.

## 유엔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 (유엔사의 창설과 법적 지위) 유엔헌장의 근거와 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토대로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을 소개 \* 노동영 2017, 김동욱 2009, 이상면 2007, 오영달 2004, 김정균 1985 등
- (유엔사의 역할 변화와 역사) 유엔사 창설기, 1970년대 존폐 논쟁기, 탈냉전기의 변곡점, 유엔사 역할강화 분석 \* 설인호 2018, 김종대 2012
- (남북한 상황변화와 연계한 유엔사의 존립 여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해체될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사를 활용할 것인지의 논쟁 \* 조성렬 2007, 이철기 2001, 장광현 등 2017, KIDA 2007

☞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여 **유엔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유엔사의 전략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유엔사 역할 변화의 역사

창설 ('50.7.24.)	대한민국 방위	전력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침 규탄, 회원국 참전 등 안보리 결의안 제82, 83, 84호</li> <li>미 합참, 극동군총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li> <li>북진을 합법화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제376호</li> </ul>
정전 ('53.7.27.)	대한민국 방위	(전시) 전력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전협정, 워싱턴 선언 이후 단계적 철수</li> <li>군정위, 중감위에 인원 파견</li> <li>한미 합의의사록 ('54.11.17) 승인</li> <li>유엔사 후방기지 창설 ('57.7.1)</li> <li>UN 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1973)</li> <li>제30차 유엔총회 결의안의 상호모순 (1975)</li> <li>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78.11.7)</li> <li>군정위 수석대표 한국군 임명 ('91.3.25)</li> </ul>
연합사 창설 ('78.11.7.)	(전시) 전력제공	정전체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작권 전환 논의 (1994-)</li> <li>"유엔사 재활성화" (2014-)</li> <li>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18.1.15)</li> </ul>
※ 변화 모색	(전시) 정전체제 유지		

## 유엔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

### ① 전작권 전환 이후,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 귀속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가?

(그렇다) 현재 연합사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1978년 유엔사가 "위임"한 것  
이므로 전작권이 전환되면 다시 유엔사로 돌아간다는 주장

(아니다) 유엔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군이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

#### • (전작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논쟁)

-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게 허여한 "작전지휘권," 1978년 11월 유엔사가 연합사에 위임한 "작전통제권," 1994년 전환된 "평시작전통제권"과 현재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
- 많은 학자들이, 1950년의 작전지휘권 이양의 근거는 [합의 의사록]에서 1978년 작전통제권 이양은 [연합사 교환각서]에서 그 근거를 찾음.
- 다수의 의견은 합의의사록의 작전지휘권과 연합사 교환각서의 작전통제권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유엔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현재 유엔사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 안보리 결의에 대한 해석문제, 무실화된 군사정전위의 정당성을 들어 불인정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관심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근거로 유엔사 해체 주력
-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국제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



-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동일시, 유엔사 해체를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
- 비핵화보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어왔음
- 최근 "주한미군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 한미동맹과 함께 국가방위의 많은 부분을 유엔사에 의존
- 유엔사의 미래 역할에 대한 입장은 미정립
- 미북, 남북 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에 나설 가능성



- 유엔사 존립은 정전협정, 평화협정과 무관하며, 관련 권한과 결정권은 미국에 귀속
- 유엔사를 통해 재정압박 해소 및 국내비판을 완화하면서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
- 유엔사의 "정전체제 유지" 권한을 강조하면서 유엔사의 무실화 방지 노력

## 유엔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

#### • (전작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논쟁)

- 2018년, 2018년의 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분석됨.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사와 유엔사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큰 틀에서의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연합방위체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
- 따라서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다르게 사용된 것이 혼동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양국이 새로운 합의를 해나가면서 오해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엔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

### ②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가 전투사령부화 할 것인가?

(그렇다) 유사시 전투수행능력 유지"를 재강조하면서 전투사령부화할 것

(아니다) 제50차 SCM에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 유지 및 유엔사의 지원사령부 역할 재강조

- (전투사령부화(O) 할 것이라는 주장)

- 2006년 벨(Burwell Bell)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독립적인 전투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2007년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관이 모든 지원전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한겨레』, 2006/07/13, 2007/01/18)

- (전투사령부화 (X)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 반대편에는 미국이 굳이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현대 군사력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좁은 한반도 전구내에 2개의 전투사령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지휘통일을 위해서는 유엔사가 지원사령부 역할에 만족할 것이라는 판단.

## 유엔사에 대한 미래 전략방향

- (기본입장) 한반도에 안정적 평화정착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유엔사 체제를 유지

- 시기적으로 UN결의안에 명시된 "북한의 적대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한반도의 통일" 이후를 고려
  - 명문화되어 있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
  - 1)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 및 한국방어 (안보리결의 제82, 83, 84호 및 한미 합의의사록)
  - 2) 한반도 통일 지원 (유엔총회 결의 제376호)
  - 3) 정전협정 이행, 준수 (1953년 정전협정)
  - 4) 유사시 전력제공 (워싱턴선언문, 유엔사-일본 SOFA)

- (정치적 효용성)

- 한미동맹을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
  -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 및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촉진

## 유엔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

### ②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가 전투사령부화 할 것인가?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는 제도보다는 운영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분명한 사실은 유엔사가 유사시에는 전투사령부의 외형을 가진다는 것임. 제공된 전력이 "전시증원(수요, 대기, 전방이동, 통합: RSOI)"되기까지는 유엔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통해 전구사령관의 작전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

- 제50차 SCM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구조를 구체화해 나가야겠지만,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략적 융통성을 제약할 수도 있음은 분명

-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 유엔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제도보다는 운영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엔사에 대한 미래 전략방향

- (군사적 효용성)

-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방지, 제3국의 개입을 억제
  - 전력제공국의 군사력을 다양하게 활용

☞ 협상전략 측면에서 동맹이 북한, 중국에 먼저 의제화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른 유엔사 역할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유엔사에 대한 미래 5개 역할 대안

- 1 유지** : 현 유엔사 체제의 유지 ( 전력제공 + 정전협정 이행 )  
한반도 방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이점을 제공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 확대** : 유엔사의 진화적 발전 ( 현 체제 + openness )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여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핵심역할 수행  
다국적 안보협력의 근간으로서 전략적 융통성 확대, 군사적 효용성 제고
- 3 이전** :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유엔사령관 겸직 ( 전력제공에 중점 )  
남북관계의 소모적 논쟁에서 회피,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용이하게 실행  
유사시, 전시에는 미래사 부사령관에게 유엔사 작전통제권을 위임
- 4 전환** :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역할 전환 ( 정전협정 이행에 중점 ) 주한  
미군과 병행하여, UN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여 평화체제 및 통일이행 관리 군  
사적 효용성 감소, 강대국간 경쟁 및 갈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낮음
- 5 해체** : 유엔사 체제의 종식  
남북, 미북 간의 신뢰가 구축된 실질적 평화체제 속에서만 검토 가능  
국제적 정당성, 군사적 효용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감사합니다.

- 유엔사 : 한반도 안보의 강력한 축으로서 역할해왔으나,  
전략상황 변화에 따라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요구
- 장기적, 포괄적 전략의 재검토
  - ① 화해협력을 통한 실질적 평화체제, 점진적 평화통일로의 이행
  - ② 냉철한 상황 인식에 근거한 대안 도출 및 선정
  - ③ 동맹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군사적 대비 태세 완비



발제3

## DMZ 내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고찰

정시구 교수  
(선학UP대학원대학교)

# 한반도 DMZ세계평화공원 내 'UN 국제기구' 유치 고찰

정시구(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국경, 칼라가디 트랜스 프론티어 공원(Kgalagadi Transfrontier Park), 양국 국경을 넘는 철새동물 개체군 보호, 2000년 조성

✓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1400km에 달하는 동서독의 접경지역으로 한반도의 DMZ와 유사. 통일 이후 동서독의 국경지역 생태공원 복원, 현재 그린벨트로 규제

✓ 시아첸(Siachen) 빙하 지역,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Kashmir) 분쟁 종결, 양국 공동으로 생태적 특징의 평화공원 조성

## 3. 한반도 38선 'DMZ 평화적 이용' 방안

✓ 휴전협정체결(1953.7.27.) 이후 미·소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중에 19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 UN군 수석대표인 로저스(F. H. Rogers) 소장,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안. 이어서 박정희 정권의 7·4남북공동선언(1972.7.4.)

✓ 북한 김일성, 1988년 11월 7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에서 DMZ 평화지대화 및 중립국 감시국 배치 주장

✓ 1990년 5월 31일 김일성, 긴장완화조국통일 평화적 환경의 일환, DMZ의 평화지대화 제안, 군사인원 장비 철수, 군사 시설물 해체, 민간인 개방 및 평화적 이용 주장. 1990년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DMZ의 평화적 이용 제기

✓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1992.9.19.),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선언(2007.10.4.) 등 채택,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 이후 5·24조치로 남북관계는 경색

✓ 2013년 7월 말, 북한 대남정책 담당자 김양건 노동당 비서, 방북한 박상권 전 평화자동차 사장에게 "개성공단이 잘되면 DMZ에 공원을 만드는 것도 잘 될 것"이라고 언급

✓ 2018년 10월 문재인·김정은의 평양정상회담 합의 문제는 북한은 2007년 10·4 선언 이행 없이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불가능 입장

✓ 북한의 '고려연방제'(1국2체제 통일방식의 위험⇒2국1체제1연방권(독점배제, 미국사례) 통일방식), 통일현법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38선 그대로 둔 채 북한주민 1인당 소득 수준이 적어도 4천불 정도 빨 전, 자유민주시장자본주의 체제로 점진적 관리

## I. 서론

✓ 본고의 목적: 한반도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UN아시아사무국) 유치의 당위성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활동 방향성 고찰

✓ DMZ(Demilitarized Zone)의 의미: '비무장', '공원(park)', '세계(global)', '전쟁의 치유', '평화', '생태', '남북간 주민' 등의 개념 함축.

## 1. 한반도 DMZ 형성

✓ 한반도 군사분계선 38선DMZ: 영·러 Grate Game(거문도사건), 히틀러 사후 소련군의 '8월 폭풍작전'과 냉전체제의 산물, 1945년 8월 11일 미국 국무부 '육군부 작전국'에 소련군 남진 대응 지시, 38선 결정

✓ 6.25한국전쟁, 국제적 강대국 논리의 미·소 대결 냉전의 서막, 남북통일은 남북 간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 국익적 차원에서도 북한과 협력 증진 중요

## 2. 세계국경지역 평화공원 성공 사례

✓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경지역, 모로쿠리엔 평화공원(Morokulien Peace Park). 1814년 양국은 전쟁을 하 고 약 100년간 평화 유지, 세계 최초 1914년 평화공원 조성

## Ⅱ.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유치 당위성

### 1. DMZ 긴장완화의 남북 간 협력 사례

- ✓ 2003년 9월 금강산 동해선도로 DMZ 육로관광 도로개설.
- ✓ 2005년 8월 개성관광 육로 건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군사분계선 통과 후 개성 주변 관광.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사망사건으로 중단. 북의 핵실험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 ✓ 2018년 10월 평양정상회담의 합의, DMZ 전역 약 200만개로 추정 지뢰제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의 DMZ 일대 작업
- ✓ 2018년 11월 시범적 DMZ 내 남북한 GP 해체 작업

### 2. 국제기구 유치 당위성

- ✓ 남북분단의 첨예한 대립의 현장인 DMZ세계평화공원 설치를 통해, 국제기구 유치 운동, 세계적인 평화운동, 점차적으로 냉전체제(이념갈등) 종식의 단초
- ✓ 평화의 상징과 역사성: DMZ는 세계적인 사상과 이념의 대립 현장. 일제 해방 후 남북 간의 70년 이상의 팽팽한 세계 유일한 냉전체제의 현장
- ✓ 자연생태계 보호: 현재 DMZ 일원 멸종위기 종인 67종 포함, 총 2700여종의 야생동·식물 서식. 전체 국토 서식 9600여종의 생물종 중 3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 남북 간의 창조경제, DMZ 생태계 보호와 관광자원 고부가가치 경제 창출
- ✓ 국제기구(UN아시아사무국) 설치 필요성: 뉴욕의 제1UN본부, 제네바의 제2사무국, 비엔나의 제3사무국, 나이로비의 제4사무국 등이 각 대륙별로 설립, 세계평화와 자연보호를 목적 창설
- ✓ 아시아 인구, 2020년 기준 세계인구 78억 명 중 60% 정도 49억 명 거주, UN 회원국이 54개국, 아프가니스탄·홍콩·대만 사태, 남한과 북한 간 등의 초민족적·초종교적·초이념적 아시아 분쟁의 UN사무국 필요성

## Ⅲ. 가정연합의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유치

### 1. 문선명·한학자 총재 말씀

- ✓ 문선명 총재는 1960년대의 초반부터 동북아시아(舊만주) 지역에 '제2국제공동체 세계평화연합'의 창설 주창. 문선명 총재는 1965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조우 "한국전쟁에서 당신이 휴전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 "당신은 공산당을 믿는가. 공산당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무리"라고 지적(말선집 제53권, 2002: 21)

- ✓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한반도 DMZ의 평화적인 활용 주창, "종교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성지를 우리 한국의 평화 지역, DMZ 활용, 여기에 UN빌딩,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건물 건축, 아시아 인구 세계인구의 절반 정도, 세계4대강국의 집결지, 세계 미래 설계 가능지, 세계 종교권과 UN의 협조 필요성, 현재 실천 주창"(말선집 제574권, 2011: 84)

- ✓ 2000년대 문선명·한학자 총재 DMZ에 '세계종교의회' 설립 피력. "DMZ '세계종교의회' 설립, 전쟁 방지 완충지역 작용, 13개 종단과 협의(세계인구 75% 종교인, 북한 침범불가), DMZ자연생태계 보호 강조(말선집 제310권, 2003: 91)

- ✓ 한반도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중심, 아시아인 다문화 난민문제, 초종교·참가정운동의 일환, 국경의 벽, 인종의 벽, 종교의 벽까지도 영원히 종식, 참사랑의 가치 실현. 세계 평화공존, 공생공영공의주의

### 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활동

- ✓ 북한의 2차 핵실험(2009. 5. 25) 이후, 본격적인 가정연합의 국제기구 유치 운동, 2009년 9월 22일에 제네바 UN 제2사무국에서 발표로 시작
- ✓ 스위스 제네바 UN 제2사무국, 세계일보와 경기도 공동 주최 '2014 UN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2014.10.31) 및 '2015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실현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5.3.2.)
- ✓ 2015년 5월 오스트리아 빈의 UN 제3사무국에서 한학자 총재 직접 주관, 천주평화연합(UPF)과 세계평화여성연합(WFWP) 공동 주최 'UN창설 70주년·한반도의 긴장 관계 해소를 위하여' 콘퍼런스, 40개국 180여 명의 학자와 UN 관계자 등 참석,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유치 논의
- ✓ 2016년 세계 41개국 150여명의 국회의원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지도자 컨퍼런스'(2016.2.15.), 국제기구 한반도 유치, 남북한 평화공존 의지 피력, 이 당시 파주시, 고양시, 철원, 고성 등 DMZ 인접 각 지자체 유치 운동 과열 현상

✓ 2000년 8월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IFWP) 총회(2000.8.18., 뉴욕 UN본부), 문선명 · 한학자 총재, UN 관할의 'DMZ 평화Zone' 구상 제시, UN과 초종교 지도자들의 협력, 모든 국경 평화지대 건설. 지구촌 전 인류의 학습교육장, 전시관, 박물관, 세계평화기금 조성 촉구(말선집 제330권, 2003: 244-253)

✓ 문선명 · 한학자 총재, 한반도 횡축의 DMZ세계평화공원, 종축의 한일해저터널 국제하이웨 건설, 종횡의 각 양측에 '중립' 완충지대 설치, 국경 초월 지대 설정, 세계문화 휴양지 조성, '초고속화' 공생공영공의 주의 새로운 문화세계 창건"(말선집 제115권, 2002: 178)

✓ 문선명 · 한학자 총재, 남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지역 중심, 약 120만 헥타르 토지 구입. 그 이유는 UN평화지대 설정으로 인하여 상실한 국토를 보상, 아울러 세계시민의 성숙한 이상적 공동체 건설 제시

## IV. 국제기구 유치 개선안

국제기구, 핵개발 저지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군비 축소. DMZ에 유엔평화공원 조성. IT 기반 평화교육시스템 세계전파. 국가간(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경제균등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세계평화 완성, 국가 이미지 상승

### 1. 북한의 개방정책 유도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가 유치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 체제와 경제적으로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궁지에 몰아붙이기 보다는 개방정책을 유도: 양돈 · 양계 · 야채 · 육류과 같은 영농기술 전수, 개성한옥 보존 사업, 코로나19방역 지원 등

### 2. 지속적인 외교활동

한반도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의 유치, 남북 간의 힘으로는 한계. 따라서 일차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 ·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활동 중요

### 3.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설치

국제기구 유치에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된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필요, 서부권파주시 · 동부권고성군 · 중부권철원군 등의 평화 · 안보 · 역사문화 · 관광 콘텐츠 연계, 체계적 관리 운영 필요

### 4. 인적·물적인 자원확보와 지속적인 평화NGO활동

한반도 국제기구의 유치 활동: 일회성 행사보다 인적 · 물적인 자원의 확보, 대내외 홍보활동, 서명운동, 국제적인 심포지엄 개최, 동식물 · 자연보호, 역사적 유적 보호, 등의 시민들의 참여 · 동조 유발을 위해 지속적인 평화NGO활동

## V. 마치는 글

✓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유치 운동 핵심: 북한 설득 · 대화 유도, 단계적 발전 전략, 북한의 협력을 위한 유인(단, 고려연방제(1국2체제) 통일방식의 위험성 경계)

✓ 유럽연합(EU) 접근방식,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의 파급효과', 협력 가능한 석탄, 철강, 원자력 등의 분야부터 협력공동체의 신뢰(유로화 구축, 상품, 자본, 원자재, 노동 등 유럽연합 역내 자유 이동), 북한 경제적 협력에서 정치적 협력으로,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유치 가능

✓ 국가주도에 의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기반은 남북교류의 한계. 앞으로 북한과의 체제통일의 전 단계- 민간주도 평화NGO활동, 대북 협력사업의 활성화, 정치적 목적 배제한 지역 주민의 실재적인 합의, 참여, 연대의 정당성 확보 중요

✓ 한국의 우수한 기업이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활용, 북한 1인당 소득 4천불 도달 할 것

✓ DMZ세계평화공원 내 국제기구: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평화공존의 가치 학습의 메카,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 여유로운 레저 활용, 인류 평화공존의 정치체제, 단편적인 행사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공생공영공의 주의식 근본적인 진화 필요









